

박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 _11단계

성경과 타종교,이단

Bible & Other religion, heresy

01	종교 혼합주의	2
02	오직 구원은 예수?	14
03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22
04	주역과 기독교 신학	28
05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35

첫 번째 시간

종교 혼합주의

사무엘상 12:1~18

종교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바로 혼합주의(syncretism)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모든 종교는 보편적인 원 종교의 반영이며 단지 점진적인 차이뿐이라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계시란 없으며, 대신 신의 실체에 도달하는 여러 다른 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는 이미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도 등장한 모습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란 근본적으로 기독교 밖에는(또는 천주교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고백을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중심 또는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 땅의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각각 다른 인간의 반응들이라는 관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가장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종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원 받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신학자 루터(Rosemary Radford Reuther)는 이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배타주의(absurd Chauvinism)”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자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은 관용적이고 다원적이며

개방적입니다. 인도 철학자 비베크난다(Swami Vivekenanda)는 말하기를, “우리 힌두교도들은 모든 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실도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주장은 수많은 영성 추구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기독교만이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오해입니다.

이슬람의 경우는 기독교 못지않게 배타적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유일하게 온전한 기적은 코란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오직 아랍말로 읽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세속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힌두교가 가진 두 가지 기본 교리를 거부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베다(the Veda)의 절대적 권위와 카스트 제도입니다. 힌두교는 세 가지 면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카르마의 법칙(모든 생명은 전생의 삶을 보상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과 베다의 권위, 그리고 윤회(reincarnation)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근거에서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일관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은 기원(Origin), 의미(Meaning), 도덕(Morality) 그리고 운명(Destiny)입니다. 주님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경우 그들의 도덕관은 그들의 기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신이 없다면 어떻게 도덕적 법에 도달합니까? 힌두교의 경우 모든 생명이 전생의 탄생을 보상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것이라면, 첫 번째 탄생에서는 무엇을 보상합니까? 간디도 말하기를 만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힌두교 경전의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1) 기원 : 먼저 기독교의 기원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으며 다르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이로써 우리는 도덕적인 준거를 갖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틀이 인간 경험과 합치됩니다. 어떤 종교도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입니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의미 : 다음으로 의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선한 사람이 되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서로 사랑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의 상황에서 의미는 다가올 것입니다. 쾌락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예배할 때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3) 도덕 : 다음으로 기독교는 도덕이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를 벗어나면 우리는 도덕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도덕은 우리 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도덕이 우리 아래 있는 것이냐? 만일 우리 위에 있다면 어디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느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격과 분리되지 않는 도덕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 운명 : 마지막으로 운명입니다. 운명에 관한 한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셨고 이로써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전혀 진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중심에 동일한 근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표현과 외형적인 조직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종교는 신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며 모든 생명이 형제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반문할 것입니다. 신이 없는 불교가 어떻게 신의 아버지

됨을 말할 수 있으며 신을 가진 종교는 아이처럼 유치한 종교라고 말한 힌두교는 어떠합니까? 따라서 신의 부성이란 허상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형제됨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이 없는 종교에서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진리의 일부도 갖지를 못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선 코끼리 비유를 들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질 때, 벽이라거나 기둥이라거나 아니면 호스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볼 때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과 달리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교에 있어서 도덕은 교리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사람을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바른 믿음을 갖는 것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죄”라는 말은 과녁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죄의 해결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결코 바른 믿음도, 바른 삶도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선과 악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입니다.

그러면 간디와 같은 사람은 지옥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 지침을 말합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 누구도 인도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든지 거부할 뿐입니다.

2)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을 위해 간구하면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대속으로 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먼저 구원받아야 하며 그래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도 말하는 바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도덕법을 시내산에서 주셨고 그리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구원은 의를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일 내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이란 인간의 체제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따르면, 각 사람은 태어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양심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경우 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양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장소나 문화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 되게 찾는다면 하나님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먼저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오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그 근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을 지으신 분으로서 메신저가 곧 메시지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은 이 선포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으며 이는 충분하고도 최종적인 선포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한번에(once and for all) 죽으셨으며, 삼일 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계시는 유일한 계시이며 결코 반복될 수 없으며, 인간 역사에 결정적인 점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힌두교와 대조되는 특징입니다. 힌두교는 내적인 명상과 순수한 사고에 강조를 둠으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으며 따라서 역사에 관심을 두는 기독교에 부정적입니다.

힌두교의 경우 아바타(avatars)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이며 결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격적인 신을 믿는 힌두교도들 비시누(Vishnu)는 아바타의 전체 순서에 있어서 내려온 것으로서 때로는 물고기로, 때로는 동물로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기에 신으로 예배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도 또 다른 신의 성육신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진 존재이며, 전체적으로는 힌두교는 순수하게 일신론입니다. 즉, 궁극적 실체는 진실하며 실제적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신약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우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고유한 선포로서 역사의 예수에 나타난 대속적 죽음과 승리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다원주의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다원주의의 핵심적 대응은 예수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유일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예배했느냐? “예수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졌기에 제자들이 중생을 경험했고 얼마 되지 않아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유대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후에는 이방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 사용했지 않느냐?”

“인간의 삶 안에 신적인 구현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다. 따라서 예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규칙적으로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란 칭호와 함께 사용했으며, 실제로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님의 선재성(pre-existence)을 믿었습니다(빌 2:6-11; 고전 8:6; 골 1:15; 요 1:1-4, 6:62, 8:58, 17:5).

바울이 “한 주(kyrios) 예수 그리스도” 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용했으며, 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에 나타난 고백을 예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곳곳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11:27, 막 13:32, 눅 10:22).

이제 부활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처음부터 교회의 근본이며 생명이며 선포였습니다.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의 핵심은 죽은 선생이나 예언자가 아니었으며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은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예수의 부활은 결코 의식을 잃었다고 회복된 시체가 아니며, 환영이나 몸이 없는 영도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진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결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자신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신약 전체는 두 가지 면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배하고 죽었던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입니다. 아울러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초월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는 힌두교가 말하는 아바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신 것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기 위하심입니다. 부처는 죽을 때, 자신을 기억함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가르침만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며, 역사 안에서 일어난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심과 겸손함을 기억하며 그분을 구속의 중심으로 둡니다. 그분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그 제자들은 그 분에게로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자신을 한번 또는 여러 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에 개입하시어 인간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가르침과 삶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시간

오직 구원은 예수?

사도행전 4:1~12

종교의 핵심은 구원이며 그 구원의 비교는 종교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구원은 어떤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구원의 의미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먼저 구원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개념에는 이 땅에서의 구원과 죽고 나서의 구원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둘 다를 가진 종교나 이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이란 병, 재난, 불의, 억압, 거짓 태도, 무지 또는 죄로부터의 건짐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상실, 분리를 포함하거나 끝없는 재탄생의 사이클로부터의 건짐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이란 사람이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며, 이는 필히 건강이나 온전함 같은 더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아감을 말합니다.

1. 이 땅에서의 구원

1) 정치적 종교들

먼저 이 땅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들이나 사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위대한 사상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나 파시즘이나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의를 말합니다. 스탈린의 경우 나라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에게 죄란 약함을 의미하며 이는 승리에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들에게 경전은 마르크스의 사상이었습니다. 히틀러 또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독일인들은 예배의 차원으로 지도자를 추종했으며 히틀러는 하나님의 신으로서 전능하고 무오하며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시한 비전은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했으며 이 세상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착취, 가난, 사회적 불의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사회를 만듦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선을 향해 헌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노골적으로 종교를 거부하면서 백성의 아편으로 여겼습니다. 종교가 어려운 사람의 삶을 고착화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마르크스는 D. F. Strauss의 논제를 받아들여, 기독교는 당시 부패한 로마 제국에서 살았던 억압된 기독교인 공동체들이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화이며, 예수는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종말론적 기대를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역사 드라마와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를 받아들여 세속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 인간의 나라를 소망했으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승리한 것처럼 노동자의 고통이 승리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적 오류는 과거의 프롤레타리아의 착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착취는 인정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옳습니다. 오류는 프롤레타리아의 죄 없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의 착취가 사라지면 죄도 사라질 것이고 황금시대가 온다는 환상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가 모든 문제라고 본 것도 문제입니다.

2) 사두개파와 불교 그룹들

오직 이 땅에서의 구원에 관심을 둔 것은 정치적 종교들만이 아닙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의 관심이자 일부 불교 그룹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귀신 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 오경에 전적으로 매달렸으며 율법에 헌신함이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주며 불순종은 이 땅에서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종교는 바로 테라바다 불교입니다. 고타마(Gautma)가 이 땅의 안전과 가정의 행복을 떠나 금욕의 길을 간 것이나 고독한 명사의 길을 간 것은 바로 불행과 고통의 신비 때문입니다. 이 길이 고난을 해결하는 길이며 깨달음(Enlightenment)의 핵심입니다. 이를 네 가지 아리안의 진리(Aryan Trut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진리(the Truth of Anguish)로서 모든 인간 경험의 본질은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등장(the truth of Arising of Anguish)으로서, 모든 고난은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단 of 진리(the Truth of the Stopping of Anguish)로서 이 모두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일시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네 번째 진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길은 8정도의 훈련을 말합니다. 이 길만이 Nirvana 즉, 욕망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며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고타마는 부처(Buddah)가 됩니다. 부처는 이 후에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하기위해 수도원 질서(Samgha)를 세웠습니다.

테라바다 불교는, 실제로는 니르바나는 수 없는 재탄생을 통하지 않고선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욕망은 계속해서 다른 존재를 만들게 되며 이로써 카르마(karma, 업보, 업은 생각, 말, 행동이며 보는 결과)가 전해지게 됩니다.

선불교는 본래 마하야나(Mahayana) 불교에서 시작된 종파로 니르바나의 길은 이 세상에서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존해야 하며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훈련과 명상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영원을 향한 구원

1) 힌두교

힌두교는 철저하게 죽은 다음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종교입니다. 힌두 철학의 Advaita Vedanta 학파에 따르면, 절대적 실체(Absolute Reality)는 오직 하나이며 다른 모든 현상들은 환상이나 외모(appearance)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생명의 바퀴(The Wheel of Life)는 인간이든 신이든 동물이든 모두가 이주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거두는 것은 이미 뿌린 것이며, 과거에 행한 것은 업보에 따라 현재에 이루어진다. 궁극적 목적(Moksha)은 평화와 안식의 변화 없는 상태이며 구원은 도덕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는 시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영생의 경험을 느낌을 말한다.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영혼은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면서도 변치 않는 브라만과 하나가 됩니다. 이 영은 카르마의 짐을 가지고 몸에서 몸으로 옮겨가는 일상적인 경험적 자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 영원한 영을 실현하느냐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힌두에는 여섯 철학파가 있습니다. Sankara, Advaita Vedanta school, Samkhya and Yoga school, Jainism,

니르바나는 서양인이 이해하든 멸절(annihilation)이 아닙니다. 이는 벌거벗음(nakedness) 또는 공허(emptiness)를 말하며, 사라져야 할 것은 생명이 아니라 갈망과 헛된 성취입니다. 종종 마하야나 불교인들은 니르바나를 피난처, 비할 수 없는 섬, 거룩한 도시로 부르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철학이 어떠한지 일반적인 인도인들은 종교를 신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며 자기의 부족도 신으로 믿기도 합니다. 이들을 바크티(bhakti)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2) 마하야나 불교(Mahayana Buddhism)

극동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Mahayana, the Great Vehicle, 이는 Hinayana, the small vehicle 와는 구분되며, 이것이 Theravada 불교임). 대승 불교의 경우 자비 (compassion)에 강조를 두며, 외부 도움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외부 도움은 보디사트바스(부다)의 형태로서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승 불교의 시작과 기독교 시대의 시작과 일치하기에, 대승불교의 성공은 외부 도움 즉, 보디사트바스(부다)라는 이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디사트바스는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니르바나를 뒤로 하고 사심 없이 고난 받는 중생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정토 불교(Pure Land Buddhism)의 경우 선 불교와는 달리, 자기 노력이 아니라 아미타(Amitabha)라는 보디사트바에게 전적인 의존을 가르칩니다. 이 존재는 신적인 구세주를 말합니다. 아미타는 수카바티(Sukhavati)라는 정토를 다스리며, 그 분의 은총을 의지하면 깨달음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의 니르바나는 실제로 기독교의 천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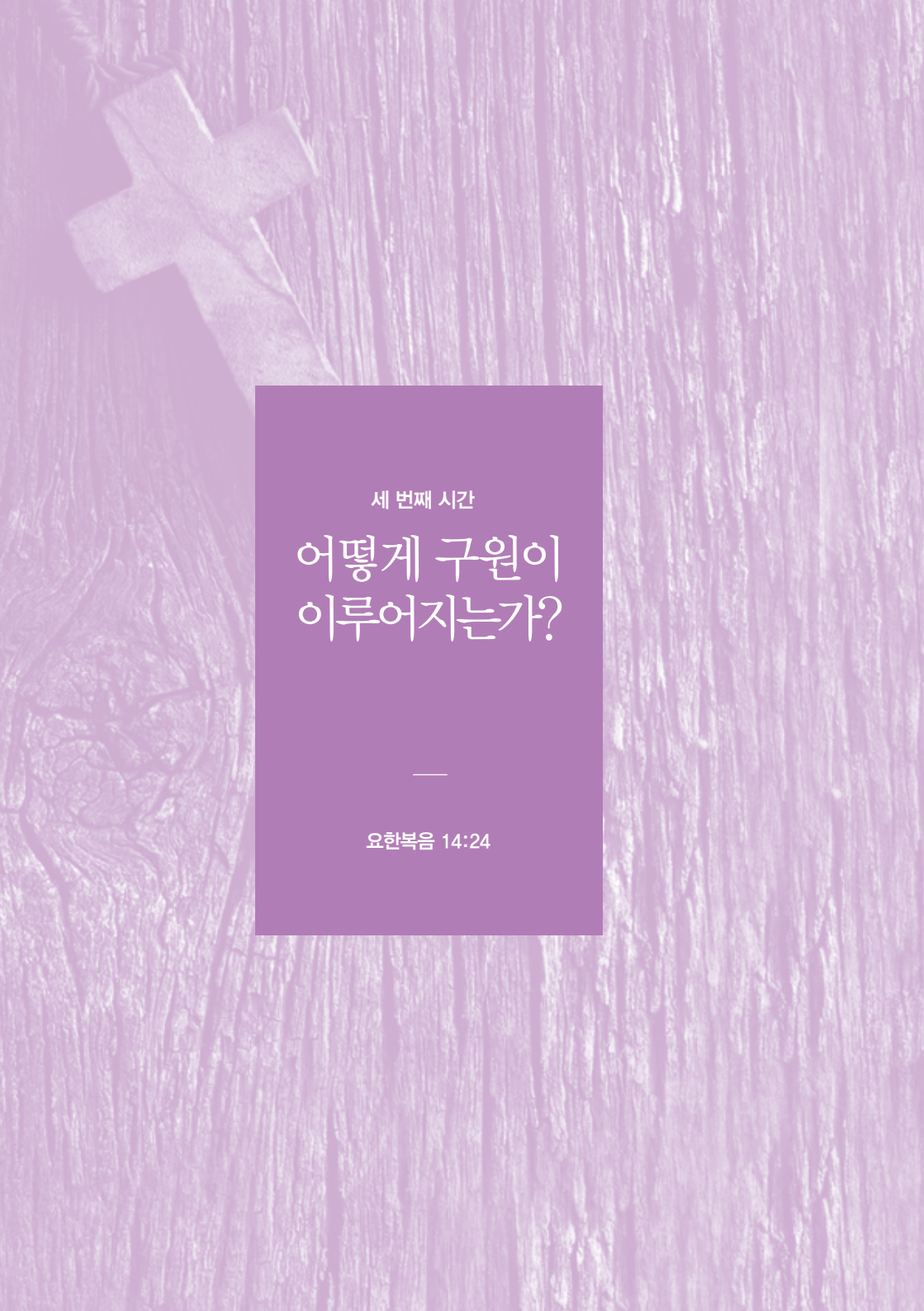
다른 종파는 티벳에서 발달한 리마교(Limaism)입니다. 이 종교는 토속 종교인 본 교(Bon Religion)와의 오랜 갈등에서 태어났기에, 마하야나 불교가 어떻게 유교, 도교, 신도와 같은 다른 신앙들의 관습과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부처가 있으며, 그는 환영의 몸(phantom bod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마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불교가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부처가 세 차원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변형된 몸(transformation body)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상적인 몸입니다. 천상적인 차원에서는 영적 축복의 몸(body of spiritual bliss)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다르마 몸(Dharma-body)로서 이는 진리

(truth), 본질(essence), 존재(being)의 몸을 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니르바나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종교학자 콘체(Conze)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제로는 부처도 없고, 완성도 없고, 단계도 없고, 낙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며 단지 환상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임시변통들일 뿐이며, 수없는 무지와 일시적인 사고에 대한 양보일 뿐입니다. 마하야나의 경우 사람들을 구원으로 실어 나르는 배(vehicle)가 있습니다. 그 배는 저 세상에 도달하게 되면 버려질 뿐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선 공허(emptiness)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suchness)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허란 절대적인 초월의 상태로서 지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3) 조로아스트 교

조로아스트교는 다가올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예전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을 함께 강조하는 종교로서 권선징악이 핵심입니다. 경전에서는 불멸성이 일관된 주제로 나타나며, 신밧 다리(Chinvat bridge)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하늘은 의인을 위한 상급이며 지옥은 악인을 향한 징벌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강조는 신약 성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님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듭나야 하며 영생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A wooden cross is positioned in the upper left corner of the image, resting on a surface with a prominent wood grain. The cross is made of light-colored wood and has a simple, slightly weathered appearance. The background is a close-up of a wooden surface with a vertical grain pattern.

세 번째 시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4:24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있어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구원은 구원 받는 사람의 도덕적인 삶의 질이나 깨달음의 정도, 자신의 헌신적 노력, 또는 종교적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구원은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세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 원시 종교(primal religions)

원시 종교에는 항상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많은 영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선하거나 악한 영, 자비롭거나 잔인한 영 등. 이러한 영들은 죽은 자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원시 부족들의 경우 이 신들과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가족이나 부족의 삶과는 깊은 관련을 갖습니다. 사람의 주된 책임은 부족의 보존과 강화이며 신에 대한 자세는 두려움(fear)입니다. 종교 의식은 악으로부터의 보존이며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신을 섬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선물, 희생, 제물 바침이 특징이며, 때로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으로부터 지키는 길입니다.

2) 힌두교

힌두교 구원의 길에서는 매우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개념들을 대합니다. 베다(Veda)에 따르면 비교적 단순한 길이 제시됩니다. 희생, 종교적 의식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의 교리는 매우 복잡하며, 시공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과거의 업보가 현지에 미치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기타(Gita)로부터의 해방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1) 현재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감당하는 길, 2) 요가를 엄격하게 훈련하는 길, 3)개인성과 모든 이중성은 환상임을 깨닫고 오직 한 브라만-아트만(Brahman-Atman)만이 있음을 아는 길, 해방됨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길 등.

힌두교의 구원은 의로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대표적으로는 금욕과 요가 훈련으로 이루어지거나, 덕, 경건, 명상의 훈련을 통한 지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신을 향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불교

불교의 구원의 길은 힌두교와 비슷한 경향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열반의 길은 사성제(Four Noble Truth)를 알고 팔정도의 길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견(바른 견해), 정사유(바른 사유), 정어(바른 말), 정업(바른 행위), 정명(바른 생활), 정정진(바른 노력), 정념(바른 마음 챙김), 정정(바른 선정)이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널리 전파된 마하야나 불교의 경우 힌두교의 아바타가 나타나며 그 가운데서 고타마(Gautama)가 가장 위대한 부처 중 한 분입니다. 그 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는 중생을 위해 길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신비한 영웅들(Bodhisattva)도 구원의 길입니다. 이들은 고타마의 가르침을 받고 완전의 경지에 도달했지만 니르바나에 이를 것을 미루고 중생을 돕는 분들입니다.

정토 불교(Pure Land Buddhism)의 경우 구원은 오직 아미타바

(Amitabha)에 간섭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분의 도움을 받는 길은 지속적으로 기도로 그 분의 이름을 부르는 길입니다.

리마교의 경우 살아있는 부처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통치자 라마(lamas)의 경우 영적 원칙이 죽은 후 49일에 아이의 몸에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4) 조로아스트교

조로아스트교의 경우, 세상이 마치기 전 세 명의 구세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각자는 조로아스트의 자손들입니다. 마지막 소시언트(Soshyant)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황소를 죽일 것이며 황소의 기름으로부터 후시(Hush)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5) 이슬람

이슬람은 엄격한 유일신론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아울러 법의 종교입니다. 얼핏 보면 구원의 길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법에 대한 순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공동체는 이 점에 있어서 여러 분파로 나누어집니다. 카와리(Kawarij) 파의 경우 중대한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에게서 제외됩니다. 시아(Shia)의 교리에 따르면 이맘(Imam)을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멸망 받습니다. 이들은 이맘을 유일한 신의 축복 통로로 믿습니다. 수니 이슬람의 경우 이슬람 경전을 마음으로 암송하고 금식과 기도의 책임을 다한다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6) 종교 다원주의의 도전

예수의 고유성은 순수하게 인간됨을 입으셨지만 자신의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시(revelation)와 함께 구속(redemption)도 이루셨고, 놀라운 가르치심과 성육신의 신비와 함께 십자가의 어두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9).

아울러 이 구원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세상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적 은총으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심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며 충성의 전환이며, 죄와 자기 충족의 죄를 부인함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제국(Christendom)이 결코 아니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왜 구세주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태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선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힌두교의 아바타와 성육신의 차이에 있습니다. 아바타의 경우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는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은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십자가의
희생도 결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light purple color with a delicate, repeating pattern of stylized leaves and branches. The leaves are of various shapes, some elongated and pointed, others more rounded, and are arranged in a way that creates a sense of depth and texture. The pattern is subtle and covers the entire area, providing a serene and naturalistic backdrop for the text.

네 번째 시간

주역과 기독교 신학

에베소서 4:1~16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적 사고방식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기독교는 갈수록 축소되며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둘로 나누어진 신앙입니다. 이를 이분법적 신앙이라고도,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신앙, 학교/교회, 사회/교회, 지식/행동이 나누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롬 7:19). 그러기에 바울은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7:24)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갖는 몇 가지 전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역동주의(dynamism)입니다. 이는 뭔가 빠르고 효과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당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입양을 하고, 장학금을 주고, 양로원을 돕고...이것이 죄의식을 감소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단절입니다 이는 관심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 메카니즘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극단적인 개인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over-individualization).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 교회, 내 신앙, 내 하나님....

다음으로 극단적인 행동주의(hyperactivism)도 한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 방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 불만과 좌절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타인이나 세상을 탓합니다.

대체(substitution)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체”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찮고 작은 일에 집착하게 되고 잔인함과 방어적인 모습과 불타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질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근대 과학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학에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know how)/의미와 목적(know why)입니다. 뒷부분은 근본이며 앞부분은 적용(기술)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의 근본은 배우지 않고(즉 철학이나 신학) 기술만 배웁니다. 그리고 기술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들면서 현대 과학자들(Einstein, Clerk Maxwell, Godel, Bohr)이 나타나면서 과학은 큰 전환을 겪습니다. 이들은 폐쇄적이고 원인-결과의 우주관(하나의 기계)을 버리고 대신 개방적이며 신학적인 우주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뉴턴을 대표로하는 관점은 기계적 관점으로서 이는 문화적인 이원론(cultural dualism)과 각종 “주의들(ism, 인종주의 racism, 개인주의 individualism)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풍성하고 열려있는 현실을 닫히도록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처음부터 신학과 함께 협력하는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도 과학과 대립적인 자세를 가짐으로 이원론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항상 헬라 철학의 사고 틀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즉,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의 틀을 사용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계시에 의한 것이기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선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라 철학이 아무리 위대해도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전할 수는 없습니다. 헬라 철학을 사용할 때 자칫 왜곡됨도 일어나고 심각한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 교회 당시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을 사용되었다가 중세에 와서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바뀐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을 사용할 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만물을 둘로 나누어서 대립시키고 한 편을 정죄하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몸과 정신으로 나누고 몸을 멸기하거나 이세상과 저 세상으로 나누고 이 세상을 죄악시 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성경과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시되 몸과 정신과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동양적인 사고의 틀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분법이 아닌 전체를 하나로 보는 사고의 틀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는 항상 둘로 나누어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지난 몇 백년 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사고의 틀이라고 말함은 특정한 종교를 말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역의 사고의 틀

주역은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는 유학의 삼경 중 하나입니다. 역(易)은 만물의 근본입니다. 이는 해와 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는 양이고 달은 음입니다. 해와 달의 관계는 영원히 그치지 않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태양은 밤을 낮으로 바꾸고 달은 낮을 밤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4 계절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태어나고 자라고 쇠하고 죽습니다. 태양계로부터 전자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합니다.

아울러 주역의 사고는 일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서로 다른 두 힘을 결코 대립시키거나 분리시킴이 아니라 다름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는 사고를 말합니다. 음은 음이며 양은 양입니다. 둘 사이에는 결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조화와 도움이 존재하며 함께 함으로 섞이거나 나누어지지 않습니

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고유함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고유함을 지키면서 존중과 협력 가운데 하나를 이룹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특정 종교를 말함이 아니라, 그 사고의 틀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합당한 세상적인 틀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보다 현대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습니다. IN TWO NATURES(두 본성), WITHOUT CONFUSION(혼돈도 없고), WITHOUT CHANGE(변화도 없고), WITHOUT DIVISION(나눔도 없고), WITHOUT SEPARATION(분리도 없고). 주님의 본성에 대한 설명은 헬라식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식으로 바라볼 때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뉴턴으로 대표되는 근대 과학의 영향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 분열의 시대입니다. 특히 자연이 객체로 여겨지면서 심각한 오용이 일어납니다. 이는 과학적인 이분법의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바른 사고 방식이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고의 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되 건강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세우는 사명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근본이며 능력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때 전적인 의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요한계시록 22:1-21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도움의 손길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참여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쳤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주님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위해 부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성경 드라마를 요약함으로 마치겠습니다.

1. 성경의 참된 본질: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의 참된 이야기

이를 이해할 때 인간 삶의 근본을 가짐.

1) 성경 이야기의 가장 포괄적인 범주들: 창조, 죄, 구속.

성경의 드라마는 구속의 성경적 이야기로서 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전 세상의 구원을 향한 일관적이고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unified, progressively unfolding drama of God's action in history for the salvation of the whole world)

- 2)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한 이야기(one story)의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함.
 성경 이야기는 모자이크가 아님. 단편적이 아님.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우리 삶을 형성하지 못함.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함.
 단편적인 성경 이해는 신학적인 전통주의자, 도덕적으로 바른 자,
 그러면서 경건한 우상 숭배자를 만들 수 있음.

2. 성경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도록 할 때,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함.

- 1) 성경은 우리가 의지할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안에는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음.
- 2)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세상의 파괴로 나아가지 않으며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만들지 않음. 대신, 성경의 이야기는 전 피조물을 본래의 선함으로 회복하는 것.
- 3) 성도들은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함.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잘못이냐? 무엇이 해결이냐? 지금이 몇 시냐?” 성경의 이야기에서의 선교 mission의 중요성을 알아야 함. 이스라엘의 사명도, 주님의 오심도, 교회의 설립도 이 때문.

3. 성경은 드라마는 여섯 막으로 된 드라마.

(Tom Wright는 5막으로 말함: Creation, Sin, Israel, Christ, Church)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가, 세상이나 우리 삶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야기에 의존함. 즉,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음. 어떤 이야기는 우리 삶의 중심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제시함. 이를 grand narratives or grand stories 라고 말함.

어떤 이야기에 따라 사느냐는 사건의 이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듦. 힌두교도들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과 전혀 다름.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삶의 전체와 관계하느냐? 아니면 삶의 일부분과 관계하느냐? 나머지는 다른 이야기를 따르느냐? 어떤 건물도 기초가 둘이 될 수가 없음. 기초는 하나여야 함. 따라서 그 이야기는 포괄적이어야 함. 기독교는 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함.

그러면 무엇이 성경의 이야기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Acts 1 :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심: 창조

Acts 2 : 왕국에서 반역: 죄

Acts 3 : 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 구속의 시작

Scene 1 : 왕을 위한 백성

Scene 2 : 백성을 위한 땅

막간(Interlude)마지막을 기다리는 왕국 이야기: 중간기 시기

Acts 4 :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accomplished)

Acts 5 : 왕의 소식 전파: 교회의 사명

Scene 1 :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Scene 2 : 세상으로

Acts 6 : 왕의 돌아오심: 구속의 완성(completed)



Memo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하심이라 _ 골로새서 1:20



Memo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_ 골로새서 3:2,3



Memo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
럽게 하려 하시며 _ 고린도전서 1:27



Memo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 갈라디아서 6:9



Memo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
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_ 갈라디아서 6:14



Memo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_ 디모데후서 2:3,4



Memo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 로마서 6:11



Memo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_ 히브리서 4:15



Memo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_ 에베소서 4:32



Mem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9



12단계 개관

- 1 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 2 단계 성경의 기본 I
- 3 단계 성경의 기본 II
- 4 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 5 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 6 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 7 단계 성경과 영성
- 8 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
- 9 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I
- 10 단계 성경과 사회
- 11 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
- 12 단계 성지순례